



2016년 05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43차 문화강좌 안내

: 2016년 첫 문화강좌는 봄에 어울리는 박남준 시인이 해주셨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화강좌는 사진을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 강사와 주제를 안내해드리오니 차 한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강의를 듣는 시간 함께 하길 바랍니다.

- 날짜 : 2016년 05월 21일(土) 16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장근범 사진작가
- 주제 : 사진으로 보는 평화이야기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협약체결

: 연구원과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김은수 관장님께서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변주승 상임이사의 연구원 소개가 있었고, 이어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체계마련, 자유학기제 체험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공동발전을 이루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안내

: 오는 6월 26일(日)~7월 1일(金), 5박 6일간 “윤상원 교수와 함께하는 해외역사탐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역사탐방은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윤상원 교수(전북대 사학과)와 함께 진행합니다. 윤상원 교수는 국내 최고의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사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 원



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을 비롯해 수십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일제 강점기 전후 러시아 한인 사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해외역사탐방 일정을 기획하였고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현지에서 생생한 러시아 근현대사와 일제강점기 연해주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투사의 흔적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1차 답사를 시작으로 향후 6회에 걸쳐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서유럽까지 진행될 유라시아 횡단 해외역사탐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 해외역사탐방 세부일정

	도시	답사지
1일	인천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 독수리전망대 / 조명희 기념비 / 신한촌 울 브린너 생가 / 해안 - 노을과 술
2일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슬라비얀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 여객터미널 / 혁명광장 / 잠수함박물관 고려사범대학 / 시장과 백화점 <한인마을> 아지미 / 시지미 / 포세트 / 치신허 - 최초마을 크라스키노(연추) 등등

	도시	답사지
3일	슬라비안카 핫산 크라스크노 우수리스크	두만강철교(한중러 국경) / 핫산역 라즈돌리노예(하마탕)/ 88국제여단 숙영지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4일	우수리스크	이상설 유허지 / 발해성터 / 최재형 고택 전로한족총회 개최지 / 고려사범전문학교 등 고려인 유적 러시아정교당 / 4월참변 유적지 등 러시아 유적
5일	하바롭스크	한인사회당 관련 유적지 김알렉산드라 관련 유적 강제이주 관련 유적지 / 김일성부대 숙영지 블로차예프전투 유적지 / 하바롭스크 도시 관광 아무르강 유람
6일	하바롭스크 인천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해를 기약...

※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연구원 소모임 안내

■ 첫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역사영화동아리 '심야(心惹) 영화'
- 활동목적 :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회원 간 생각을 공유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내 영화관에서 단체관람 후 토론
해당 영화 비 상영시 연구원 내 프로젝트 활용하여 관람
- 활동계획

일시	내용	비고
5월 18일	꽃잎	
6월 25일	태백산맥	
7월 中	답사(추후 계획공지)	
8월 15일	일본의 가장 긴 하루 / 쉼들러 리스트	

■ 두 번째 소모임

- 동아리명 : 인자요산(仁者樂山)
- 활동목적 : 등산과 답사를 통한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연구원 사업에 적극참여
- 구성인원 : 회장, 총무 각 1인 / 15명 이내
- 세부계획 : 전북권 500m 미만 산과 인근 지역 답사 및 산행
3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답사와 산행
- 활동계획

일 시	내 용	비 고
5월 28일	간재선생 유지와 계화산(해발 244m / 부안군 계화면)	
8월 20일	붕어섬과 국사봉(해발 475m / 완주군 구이면)	
9월 24일	망해사와 진봉산(해발 72m / 김제시 진봉면)	
10월 22일	섬진강과 옥출산(해발 276m / 순창군 풍산면)	
11월 19일	군산저수지와 청암산(해발 118m / 군산시 회현면)	
12월 17일	쑥고개와 천잠산(해발 159m / 전주시 삼천동)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5월 16일(月) : 주간회의
- 05월 21일(土) : 43차 문화강좌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p>哭孟浩然(곡맹호연) 故人不可見(고인불가견) 漢水日東流(한수일동류) 借問襄陽老(차문양양로) 江山空蔡州(강산공채주)</p>	<p>맹호연을 곡하며 오래 사귀 친구를 만날 수 없어도 한수는 날마다 동으로 흐르누나 양양노인 맹호연을 물어보니 채주의 강산이 텅 비었다 하누나</p>
--	---

■ 작자소개

- 왕유(王維). 왕유는 당대(唐代 : 618~907)에 태어나서 자랐다. 왕유는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채주(蔡州)'는 한수(漢水) 가운데 있는 모래톱으로, 맹호연이 생전에 자주 찾아 노닐던 곳이다. 일찍이 한(漢)나라의 채모(蔡瑁)가 이곳에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는 맹호연이 떠났으니 채주의 강산이 텅 비고 말았다는 왕유의 낯두리가 이 시를 맺음 하였다. '왕맹'이란 칭호의 반쪽 왕유가 맹호연을 잃고 얼마나 허전함을 느꼈는지 쉬 미루어지는 구절이다.

■ 역사속의 오늘

◎ 여전히...피해자가 밝혀라?...1980. 5. 24 한 소년의 죽음과 오늘

1980년, 철저히 고립된 한반도 남쪽의 도시 광주를 둘러싼 신군부와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숨을 고르던 5월 24일, 대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계엄령으로 휴교되었던 광주.

당시 광주 효덕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전재수는 학교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놀다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열 살 소년이 총을 잡았을 리는 만무했다. 그는 친구들과 동산에서 놀던중 계엄군의 총격에 놀라 달아나다 벗겨진 고무신을 주우러 돌아 간 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부검 당시 그는 열 발이 넘는 총탄이 박힌 채였다.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밀어가다 1984년 세상을 뜨고 말았다.

당시 전재수를 비롯한 초등학생 무리에게 총격을 가한 병력은 11공수여단(여단장 최웅)이었다.

11공수여단장의 상급자는 정호용 육군특전사령관, 그의 상급자는 전두환이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실시된 '광주사태'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재수에게 소총을 난사하고 광주에서 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없다. 지휘체계와 명령에 따른 복종은 있었으되 책임자는 없는 형국이다. 하다못해 군대에서 아침에 눈을 쓸러 나갈 때도 빗자루를 들 것인지 가래를 들 것인지 시키는 이와 실행하는 이가 있다. 대관절 이런 황망함이 북한의 남침 위협에 하루도 편한 날 없는 63년 휴전체제인 나라에서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5월 광주에 신군부가 가한 악영향 중의 하나는 그 주변과 시대의 사람들을 망쳐 놓았다는 데 있다. 그들만 아니었으면 멀쩡하게 살았을 사람들을 보상도 없는 역사의 희생자로 만들어 망각의 늪에 던져 버린 것이다.

2016년 5월 광주, 금남로 518기록관(구 광주카톨릭센터) 입구에는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과 시민을 북한 남파공작원으로 지목한 극우단체들에 대한 당사자의 신고를 바라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모질게도 피해자에게 망각하고픈 기억을 살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증언하고 무고함을 증명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금수(禽獸)의 세상에 가까운 오늘, 전시회장의 패널을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에게 부끄러운 참회였다.

학살이 일어난 것에 국가가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일부는 여전히 학살이 아니라 북괴군의 난동에 의한 소요였다고 외치고 있고 학살의 배후자로 지목되는 이는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에서 시간이 멈춘 이들이 있다. 밝혀진 것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음에도 국가를 구성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응당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 역사는 그 전형을 만들지 못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가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는 나는 책임이 없고 "진상규명은 혈세(血稅)가 추가로 들어가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신문사 가운데 최대 발행부수와 최대 구독자를 자랑하는 언론은 "피해자들은 양보하고 인내하며 성숙한 자세를 유지해야한다"고 준엄하게 주문하고 있다.

학살의 피해자가 나서서 "우리는 북한의 남파공작원이 아니오"라고 밝혀야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나라, 그로부터 34년이 흘러 일어난 참혹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하는 나라. 이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금수의 내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입장의 동일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실천적 연대 역시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애정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찰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관찰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역사의 피해자이면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길 강요받고 있는 이들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

"가해자의 시간과 피해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중력이 시공간을 끌어당기듯 죽음의 끌어당긴 고통의 시간은 길고 무겁고 어둡다. 숨지고 다친 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내야 하는 시간의 무게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온 사회가 나서서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려 할 때에 지옥의 시간은 줄어들고 공동체는 해법을 얻는다.

피해자는 늘 약자다. 강자는 결코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누구의 편인가다. 정부가 힘 있고 돈 있는 자들 곁에 설 때 역사는 거짓의 편이 된다. 사람의 목숨 값이 너무 싸다고들 한다. 정부를 진실의 편으로 만들고 사람의 생명이 그 자체로 대접 받게 하는 것은 시민의 일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이들 곁에 서주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16. 5. 9. <아침을 열며> 피해자의 시간 中